

연세대, 과기정통부 'KIURI 사업' 선정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2020년도 KIURI(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신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KIURI 사업은 이공계박사에게 첨단산업 관련 주도적 연구개발 경험을 제공해 혁신역량을 키우고 산업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간 약 25억 원씩 3년 6개월간 최대 86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우영 교수는 미래자동차용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대한 박사급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극한물성 소재-초고부가 부품 KIURI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장(신소재공학과 이우영 교수)을 중심으로 신소재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등에서 선정한 멘토교수진 15명, 산학연 소속 연구자문단 12명, 박사급 신진연구인력 17명(신규 채용) 및 박사과정 연구원 20명 등 총 70명 규모의 사업단을 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과 더불어 현대자동차, 동국제강, 엘엠에스 등 12개 관련 기업으로부터 30억 원 수준의 매칭연구비를 지원받는다.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첨단 연구수행 및 진로개발에 대한 수월성을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KIURI 연구단은 특화된 사업단 운영 시스템 구축은 물론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독립성(자기 주도적 연구수행 및 연구비) 및 지위보장(신분 및 연봉)을 위한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산학협력 기반의 생애전주기 연구자 완성 플랫폼 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혁신인재 양성